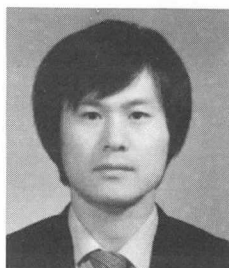


국제곡물 수급동향 및 국내 배합사료 가격전망



김치영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과장)

1. 페르시아만사태와 사료산업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으로 야기된 페르시아만사태는 세계경제를 뒤바꿔 놓은 채 '91년으로 넘어옴에 따라 모든 전망과 예측을 어렵게 하고, 비산유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산업에너지의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에너지자원의 파동이 곧 산업과 경제의 혼란과 침체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두차례의 석유파동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험한 바 있다. 특히 산업의 성장과 함께 에너지 소비증가일로에 있는 비산유국의 경우 석유파동의 타격은 치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때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1~2차 오일쇼크때처럼 다시 제3차 오일쇼크를 맞게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기름을 직·간접으로 쓰지않는 업종이 없기 때문이다. 전혀 관계없는 업종처럼 보이는 축산업도 유가가 오르면 생산비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사료, 동물약품, 축산

기자재의 축산경영 등이 유가인상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국제 원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원유가의 상승은 대내적으로 원유수입부담을 증대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를 위축시켜 수출경기의 악화를 초래, 국제수지를 악화시킨다. 또한 유가상승은 국내기업의 생산비용을 상승시키고,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경제주체들의 실질소득과 이윤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 및 투자수요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의 유가는 중동사태의 진전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유가하락을 촉진할만한 뚜렷한 사태발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로, 현재 마지막 시한으로 정해놓고 있는 1월 15일이 지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이같은 가운데 정부는 지난 11월 24일 연내에 유가를 인상하지 않겠다던 당초의 방침을 바꿔 1차 인상했고, 곧이어 추가인상이 뒤따를 전망

이다. 결국 페르시아만사태로 인한 국제 원유가의 상승은 국내 배합사료 수송, 가공, 전력비용의 상승을 유발하고, 수입해오는 원료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양축농가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 91년 사료시장의 전망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이 지속되고 국내 유류가격이 크게 인상·조정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지만, 특히 대부분의 사료용 원료를 수입·조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축산·사료산업에도 적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출국들의 사료원료 생산비 인상을 차치하고라도 대부분의 사료용 원료를 해상수송으로 수입하는 관계로 선임 상승에 따른 곡가상승이 우려된다.

사료원료의 생산코스트 상승은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사료업계에 곧바로 영향이 나타나지 않지만 수입시 해상운송비용의 상승은 곧바로 나타난다.

참고로 지난 10여년간 국제선임 추세를 보면, 지난 1979년 제2차 오일쇼크 발생시 최고 톤당 36.5\$까지 급등했으며, 그해 가장 낮은 수준인 21.25\$에 비해 무려 70% 이상 상승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페르시아만사태 역시 유가가 배럴당 40\$을 넘어섬에 따라 미국 Gulf→한국(5만톤급 기준)의 곡물운임시세는 톤당 16.0\$에서 25\$까지 급등하였고, 미국 서해안(PNW)→한국(5만톤급 기준)의 곡물운임도 7.50\$에서 14.5\$까지 상승하였다. 그래도 선임상승이 유가상승폭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은 선임의 구성비중 유가비중이 비교적 낮고, 최근들어 국제곡물시장의 수급상태가 공급과잉 기조를 보이면서 곡물교역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침체상

〈표1〉 세계 사료곡물 수급 동향

구	분	기 초 재 고	생 산	수 입	수 출	국 내 총사용	비 고
73/74	세계	81.5	669.5	73.2	73.2	670.4	
	미국	31.7	186.8	0.2	40.7	156.2	
74/75	세계	80.6	632.7	63.4	63.4	622.8	1차 오
	미국	21.8	150.9	0.5	35.9	116.8	일쇼크
78/79	세계	125.5	755.4	92.9	92.9	742.0	
	미국	50.4	222.1	0.2	59.2	155.6	
79/80	세계	138.9	744.8	99.5	99.5	742.2	2차 오
	미국	58.0	238.4	0.3	71.0	161.5	일쇼크
88/89	세계	213.0	728.6	93.9	93.9	796.7	
	미국	134.1	149.7	1.2	61.2	157.6	
89/90	세계	144.9	799.7	99.5	99.5	829.5	
	미국	66.2	221.4	1.2	68.6	176.0	
90/91	세계	120.6	820.0	99.1	100.3	825.1	
	미국	45.7	230.4	1.3	59.0	1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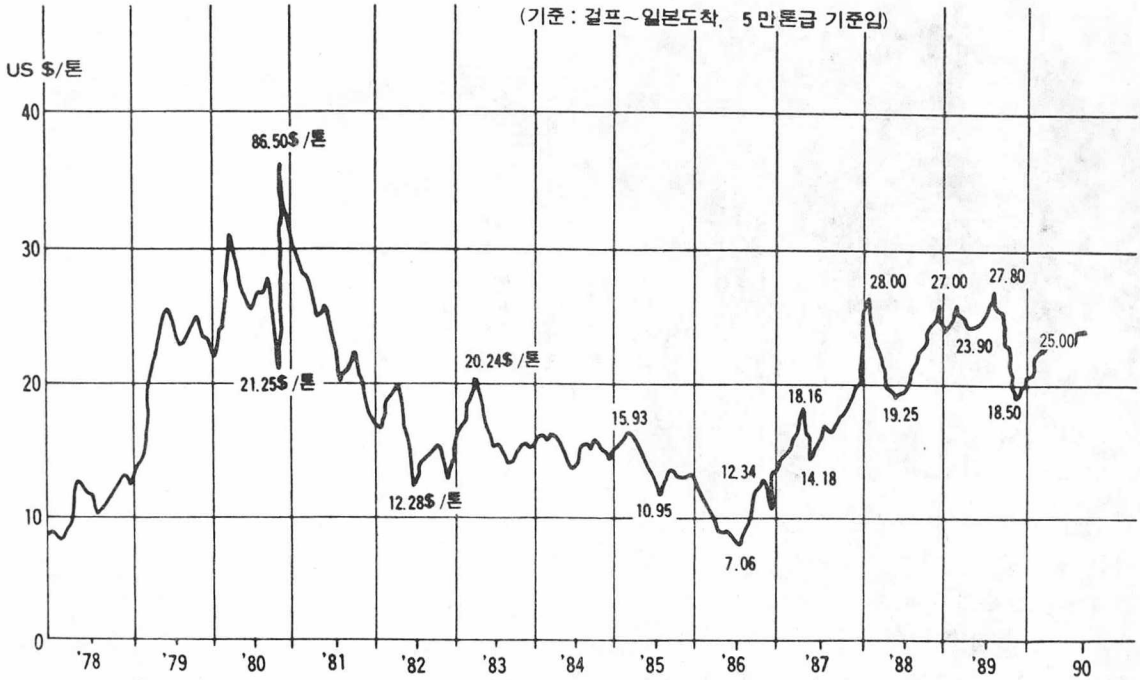
자료 : USDA, CROP REPORT

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유가상승으로인해 곡물의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제곡물가격은 다행히 공급과잉으로 인해 약세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미국산 옥수수가격은 지난해 5월 평균 144\$을 기록한 이래 점차 약세를 보여 최근에는 130\$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사료용 소맥은 96\$대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1974년과 1979년의 오일쇼크 발생당시는 미국의 대한발과 소련의 대홍작 등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지난해의 경우는 세계 소맥생산이 풍작을 기록했고, 사료곡물의 주요수입국들의 수입수요가 줄면서 의외로 낮은 가격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사료업계가 '89년부터 지속되어온 환차손과 '90년 4월, 5월의 사료곡물 가격급등시 구매한 원료사용으로 원가압박이 누적되면서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 이웃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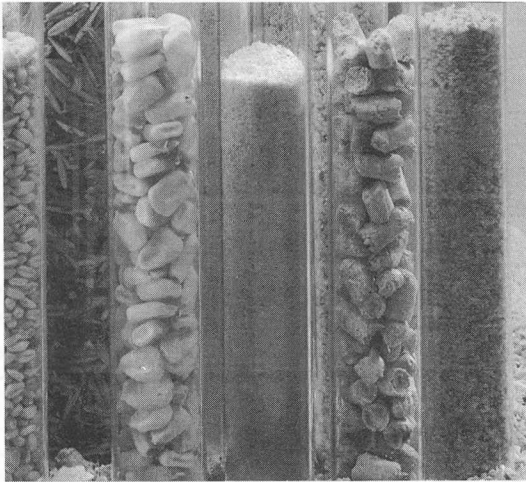
〈그림1〉 최근 10년간 선임추이

에 7~8%의 배합사료 가격을 인상시켰고, 최근에 와서 다시 사료가격을 인하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료기업들은 판매시장에서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가격조정이 어렵다보니 시기를 놓친채 지난해말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2~3%의 인상을 운운하다가 한해를 넘기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합사료 가격은 일반적으로 원료구매 이후 3~4개월 지난 후에 원가에 반영이 되며, 원가계산은 대개의 기업들이 분기별, 또는 월별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곡물 가격 추세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과거에는 배합사료가격은 주로 원료가격만을 가지고 인상요인을 논의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사료원가중 인건비와 물적유통비용(物的流通費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이 부분의 비용상승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면

서 상하차를 시키는 노무자의 노임이 3만5천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인력확보가 쉽지 않고, 과거 1시간이면 운송할 수 있는 거리가 2~3시간씩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같은 요인들이 최근의 배합사료 가격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91년도 세계 사료곡물 생산량은 약 8억2천만톤으로 89/90년의 7억9천9백7십만톤에 비해 2.5% 증가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91년도 세계 사료곡물수급은 다소간의 공급과잉기조를 나타낼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식용소맥에 있어서 두드러져 상당량의 저급소맥(Feed wheat)이 사료용으로 공급되면서 일부 옥수수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간의 경쟁도 치열하면서 곡류에서는 중국의 옥수수, EC, 캐나다, 호주의 소맥, 중국



의 수수 등이 경합을 보일 전망이며, 박류 역시 미산, 중국산, 인도산, 캐나다산 등의 치열한 가격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아무튼 '91년의 배합사료가격은 원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료곡물 수급이 안정되면서 원료가격도 낙관적이며, 이때문에 할인판매, 외상기간연장 등 여러가지 유형의 가격인하경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양축가들은 우리나라 배합사료 판매가격이 자유화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가격과 품질을 고려한 선택구매가 요구되며, 공동(협동)구매를 통한 적정구매물량을 확보하여 가격교섭력을 강화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과 같이 배합사료 생산물량이 줄고,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태에서 배합사료공장이 가장 어려운 것은 거래선의 확보이므로 양축가들이 이 점을 감안하여 가격교섭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사료의 현찰구매풍조부터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사료기업들도 배합사료가격을 안정시키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낮은 가격에서 보다 과감한 구매를 통해 충분히 값싼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91년도 배합사료가격을 장기적으

〈표2〉 옥수수 시세동향

(단위 : C&F, US\$/톤)

년도별 월별	1974	1978	1989	1990
	1차석유과동	2차석유과동		
1월	163	126	149	135
2월	168	128	145	135
3월	155	126	148	138
4월	154	136	144	142
5월	151	142	147	144
6월	156	162	138	141
7월	168	169	132	134
8월	182	161	126	130
9월	172	160	128	122
10월	187	162	133	124
11월	181	165	138	126
12월	173	166	138	
연평균	167	150	139	

로 안정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흔히 원료가격이 상승할시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착각하여 구매에 적극적이다가도 가격이 떨어질때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착각하여 구매에 소극적인 것이 원료구매자가 범하기 쉬운 오류이다. 주가가 오를때는 보유물량을 줄여나가고, 주가가 떨어질때는 보유물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주식투자의 ABC이듯이 원료가격이 오를때는 구매물량을 줄이고, 원료가격이 내릴때는 구매물량을 늘려 확보하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의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보다 과감한 지원정책을 통해 배합사료가격을 인하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UR협상의 타결이 목전에 와있는 현실점에서도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10% 이상의 배합사료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91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관세감면, 원료수입규제품목의 해제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